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4.4.26
www.humankt.org

특별명퇴 호외 #4



대우 받은 만큼 일하자

텅 빈 사무실, 주인 없는 책상, 웅한 가슴, 8320명이 떠난 자리다. 이 모든 게 2주 만에 벌어졌다. 2주 전, 5월부터 자신이 실업수당을 타러 다닐 신세가 될 것임을 예상했던 이가, 혹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지난 학기로 끝날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나! 군사 기습작전 하듯 치러진 2주 간의 명퇴 과정에서의 모욕과 위협은 KT 전 직원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렇게 사람들을 떠나 보내고 우리에게 날아온 황창규 회장의 메시지는 “독하게 일하자”는 것이었다.

독하게 일하자고? 대우 받은 만큼 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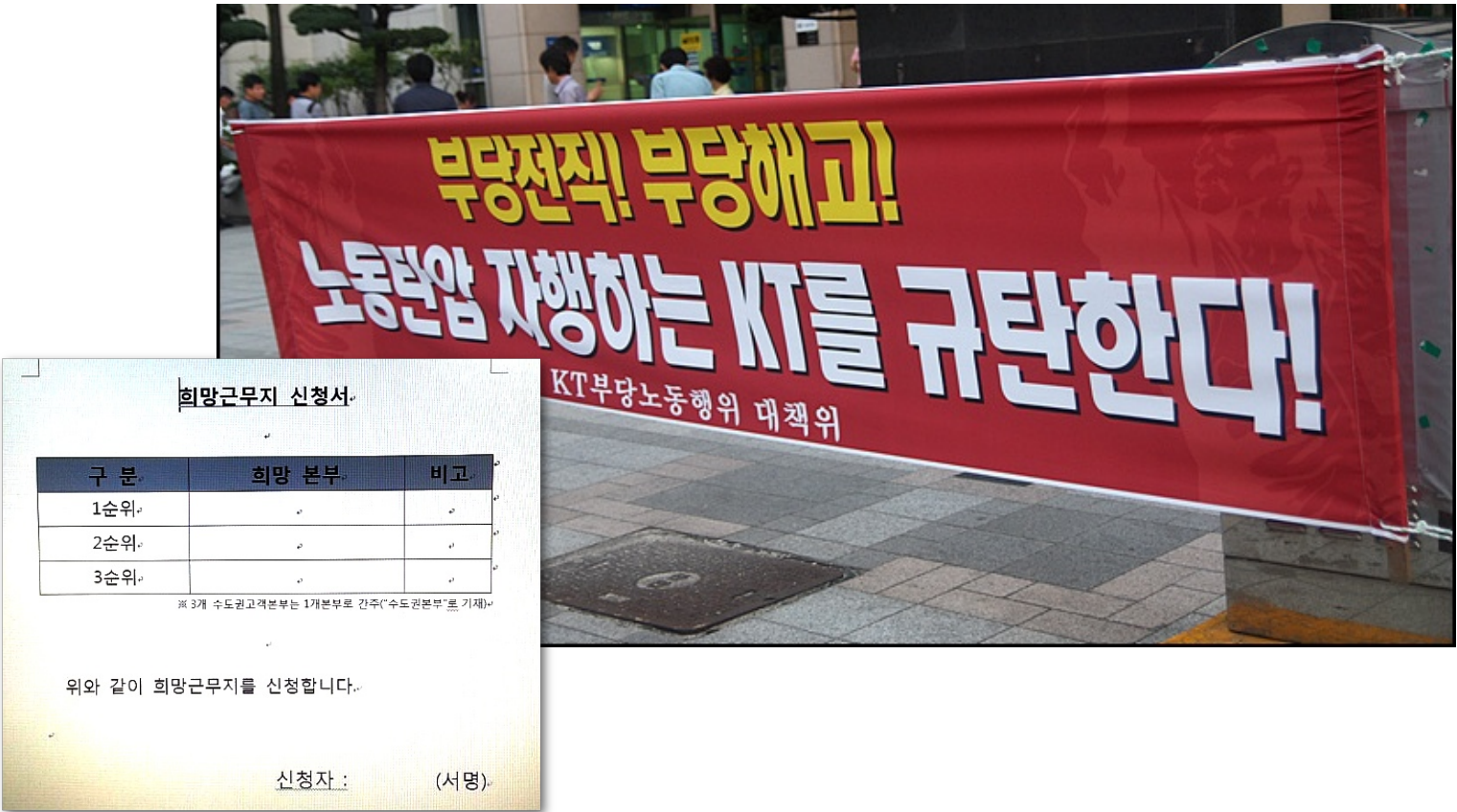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회장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지 않은가! 가슴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인간이다. 이 너털너털한 가슴으로 지시가 내려진다고 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또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는 주인의 채찍질이 무서워서 일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노예제가 사라지고 형성된 근대적 노사관계란 채찍이 아니라 보상으로 일을 시킨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채찍이 아닌 적절한 대우를 통해 일을 시키는 게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이다. KT 경영진에게 이러한 근대적 노사관계 마인드라는 게 과연 있거나 한 걸까? 그래서 8320명을 쫓아내고 “독하게 일하자”라는 메시지를 선택한 황창규 회장에 대한 KT새노조의 답변은 “대우 받은 만큼 일하자”이다.



반드시 황창규 회장 사과해야

영업정지 기간 KT 이동통신 점유 30%가 무너졌다. 12년 만의 일이다. 회사는 영업력 회복이 급선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명퇴 강요 기간에 우리에게 가한 온갖 협박, 우리들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를 비연고지 발령 등의 위협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영업재개 됐으니 30% 점유율 탈환을 위해 “독하게 일하자”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게다가 조직개편과 추가 구조조정설 마저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서 일하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게 “대량 명퇴 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남은 잔류자들에 대해 비연고지 발령 등 그 어떤 보복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그게 독하게 일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겠는가!



두려워 말라

선택은 끝났고 우리는 잔류를 선택했지만 두려움도 여전하다. 하도 회사로부터 당하고 살다 보니 직원들은 부지불식 간에 KT를 아오지 탄광으로, 경영진을 우리들을 괴롭히려는 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번 대량 명퇴도 따지고 보면 그런 두려움의 산물 아닌가!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 말자! 물론 곧 바로 조직개편이 바로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인사발령도 있을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에 대해 장난질 칠 수 있다. 그러나 전원 비연고지 배치와 같은 불법적인 조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회사도 새노조의 내부감시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감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자!

회사는 치열한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하에서 지금과 같이 노동인권 침해와 같은 부정적 뉴스가 계속 제기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미 KT 노동인권 문제는 여러 차례 이슈화된 바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회사 경영진에 의해서도 좌우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지키려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솔직히 지금 KT의 참담한 노동인권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데도 큰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회사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감시자로 역할을 하자! 그리고 KT새노조와 소통하자!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KT노동자의 인간선언하자! 우리 모두가 KT새노조가 되자!

이제 이번 4.8 대량명퇴 사태를 계기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경영진이 결코 우리를 공동운명체로 보고 있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여기에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인사조치 등이 발생된다면 이는 KT노동자들을 퇴출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선언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거꾸로 우리가 경영진에게 KT노동자가 인간임을 보여주자. 우선 대우 받은 만큼 일하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시 출퇴근 하자! 자폭하지 말자! 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하자! 그렇게 우리 모두가 KT새노조가 되어 우리들의 고용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

KT새노조가 대안이다

이번 “4.8 강제명퇴 사태”는 더 이상 KT제1노조가 조합원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KT노동자를 죽이는 회사의 노무관리 대행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즉 정윤모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가 무능해서 조합원을 못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와의 어용적 합의를 남발하여 거꾸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8320명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직접 원인은 바로 고용, 복지, 임금 피크제 등 KT노동자들의 기본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조차 KT제1노조가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즉 노조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노사 합의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합리화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Mass영업·개방/AS·Plaza 분야 업무를 폐지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해당분야 잔류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 후 컴컴직원으로 재배치한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 시행한다.
3. 인사규정상의 사무/기술직원은 일반직원으로 통합한다.

2014.4.8.

주식회사 케이티 회장을 대리하여 경영지원본부장 한 동훈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업지원실장 한 호

노사 합의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종사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1. 특별명예퇴직은 2014.4.30일자로 시행한다.
 - 특별명예퇴직은 근속 15년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 특별명예퇴직 유형은 퇴직형과 재취업형 2가지로 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퇴직희망자가 재취업형을 선택하는 경우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2년간의 그루터 취업을 알선한다.
2. 정기명예퇴직 제도는 2014.5.1일자로 폐지한다. 단, 2014.1분기 명예퇴직자는 금번 특별명예퇴직 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임근제도는 2015.1.1일자로 도입한다. 단, 적용연령 및 금액을 등 세부기준은 추후 합의 시행한다.

주식회사 케이티 회장을 대리하여 경영지원본부장 한 동훈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업지원실장 한 호

노사 합의서

이티와 kt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고의 상생을 위해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합의한다.

학자금 지원/내부제도 및 본인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한다.

주거 지원제도를 폐지하며, (주)kt/ktf 이원 운영중이던 금 지원제도는 kt 기준으로 통합한다.

만p를 130만p로 조정하고, 인재육성포인트 폐지한다.

하여 전년도 영업이익과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은 2015.1.1일자로 한다.

2014.4.8.

주식회사 케이티 회장을 대리하여 경영지원본부장 한 동훈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업지원실장 한 호



반갑습니다, 고객님!

다온플랜은 회원님과 맺은 인연을 영광으로 여기고, 정성 어린 서비스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다온플랜은 KT노동조합이 전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기획하고, KT가 지원하는 고품격 장례 서비스 브랜드로 출발해 신뢰와 성원, 자신감을 바탕으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다온플랜의 자신감은 “추가비용 없이도 가능한, 품격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례서비스도 이제 품격과 신뢰가 높아져야 하고, 고객님께서 마음편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온플랜은 시작부터 수익보다는 전문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사업구조를 간소화하여 더 크게 보강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부디, 하나 하나 꼼꼼히 비교하고 실패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다온플랜이 전국망을 갖춘 KT와 함께 사랑받는 대표 경조서비스브랜드로 100년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동행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77-1555로 주저 없이 전화주시요. 감사합니다.

다온플랜 대표

△ 분사, 복지축소 등 어용적 노사합의를 남발한 KT제1노조 정윤모 위원장. 현재 다온플랜 CEO도 함께 맡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 황창규 회장 하에서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노사 교섭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처럼 KT제1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는 한, 우리들의 미래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KT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KT제1노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모두가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당장 노사합의 할 일은 계속 발생할텐데 그 대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KT노동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과제는 KT제1노조의 과반수 대표권을 무너뜨려 더 이상의 어용적 노사합의를 남발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과 같이 우리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 멈춰진다.



이에 우리는 긴급 호소한다. 당장 KT새노조에 가입해 달라! 물론 여전히 KT새노조 가입이 부담스럽다는 조합원들의 갈등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KT새노조는 긴급하게 비공개 노조원 제도를 도입했다. 당장 공개적인 조합가입이 부담스러운 KT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KT새노조 비공개조합원으로 가입하자. 우리는 이러한 비공개 조합원을 모아 다수 노조가 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노조가 된다면 우리 조합원을 전면 공개하고 회사에 교섭권을 요구할 것이다. KT새노조에 가입원서를 보내달라!



KT새노조와 함께해요!

▷ KT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 ① KT새노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
KT새노조에 보낸다~

 메일 : 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② 조합비를 납부한다~

 계좌 : 067502-04-210518 (국민은행 김미영)

▷ 공개가입이 부담 되신다면?
비공개 조합원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형태(택1)	KT노조(1노조) 탈퇴	조합비	가입비
공개 조합원	O	3만원/월	20만원(분할납부 가능, 무기한)
비공개 조합원	X	1만원/월	없음

※ 가입방법이 어려우세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KT새노조 지회장에게 연락
주세요!

- 수도권 : 장교순 010 6802 5131
김미영 010 9932 2002
- 충남북 : 방영식 010 6770 6968
- 전남 : 김상옥 010 9885 9494
- 전북 : 오주헌 010 2686 6084
- 대구 : 원병희 010 9877 3600
- 기타지역 : 유용국 010 9854 2510

[KT새노조 밴드에 초대합니다]



- 900명이 넘는 KT직원의 소통 공간입니다.
(4/26일 기준)
- 실명/비실명 자유롭게 활동하세요.
- 가입방법: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